



## 국내·외 축산소식



### 〈2006 전북〉 다시 찾아온 AI

3년만에 다시 찾아온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북의 양계산업 기반을 뿌리째 훼들고 있다.

특히 감염 원인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 AI의 확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 ◇3년 만에 찾아온 AI

전북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 달 19일. 2003년 12월 충북 음성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뒤 2004년까지 전국을 휩쓸었던 망령이 2년 11개월 만에 되살아난 것이다.

전북 익산시 함열읍의 양계농장에서 지난달 19~22일 닭 6천여 마리가 폐사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 판정됐다. 이 소식에 전국이 빨칵 뒤집혔고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당국의 방역활동이 본격화됐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11월 26일, 닭의 AI 바이러스 잠복기가 보통 2~3일이라는 점에서 한 고비를 넘긴 것 아니냐는 기대가 확산하던 때였다. 그러나 첫 발생지로부터 3km 가량 떨어진 익산시 황등면의 또 다른 양계농장에서 이를 사이 닭 200여 마리가 폐사했고

두 번째 AI로 확인됐다.

2차 고병원성 AI는 1차 발생지와 인접한데다 철저한 방역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방역대 안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추가 확산의 전조로 받아들여졌고 방역당국은 초비상이 걸렸다.

이로부터 다시 12일이 지난 이달 8일에는 황등에서 18km 떨어진 김제시 공덕면의 메추리 사육농장에서 메추리 3천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며 3차 고병원성 AI 발생을 알렸다.

3차 발생은 익산을 벗어난 인접 시·군으로까지 AI가 견갑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것을 의미했고 전국 어느 사육농가도 안전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증폭됐다.

#### ◇확산을 막아라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필사적인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AI 발생 농가를 전면 폐쇄하고 반경 500m와 3km, 10km로 방역대를 나눠 가금류와 사람, 물품,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했다. 바이러스 전파 경로로 의심받고 있는 AI 발생지 인근의 23번 지방국도도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방역당국은 또 AI 발생지로부터 3km 이내의 모든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작업에도 박차를 가했다.

익산에서만 178농가 76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후 매몰됐고 종란과 식란 1천63만여개가 폐기 처분됐다. AI 발생 농장으로부터 종란을 공급받았던 부화장 7개와 사료공장 등도 모두 폐쇄 조치됐다.

김제에서도 13일까지 발생 농장의 메추리 29만여 마리와 반경 3km 이내의 닭 7만5천 마리가 모두 살처분됐다.

방역활동도 이동식 차량 소독기와 고압고온소독기, 생석회 등 방역장비와 약품이 총동원돼 전방위적으로 이뤄졌고 도내 각 시·군에서는 읍·면·동사무소 직원들 까지 대거 투입돼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보건당국도 AI 감염 우려가 높은 살처분자와 방역요원 등 1천350여명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인근 주민 3만여명에 대해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인체감염을 막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AI 피해

AI가 발생한 익산과 김제는 인근의 정읍시까지 포함해 전국 최대의 양계단지가 형성돼 있어 피해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익산시에서 두 차례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농가가 입은 직접 피해액이 94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3차 발생지인 김제시 공덕면 일대의 메추리와 닭을 포함할 경우 살처분 피해만 100억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농가들이 최소 90여일간 병아리 입식을 새로 하지 못하고 이동제한 조치로 닭과 계란 등을 제때 출하하지 못하는데 따른 피해도 만만치 않다. 덩달아 배추와 무, 쌀 등 다른 농산물까지 판로가 막히고 있으며 사람들의 통행이 끊기면서 문을 닫는 음식점도 속

출하고 있다.

여기에 이미 200억원을 넘긴 하림[024660] 등 육가공업체들의 매출 손실액 등을 더하면 직·간접적인 피해액만 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AI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AI가 추가로 발병한다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북의 양계산업 기반도 뿌리째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철새가 주범인가

AI의 감염 원인과 경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방역당국은 최근 AI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전파 경로를 야생 겨울 철새에서 찾고 있다.

방역당국은 월동기를 맞아 이동을 시작한 철새가 농장의 먹이를 먹거나 분비물을 흘려 닭과 오리 등의 가금류를 감염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AI 발생지들이 철새가 많이 날아드는 군산 금강호 인근에 있다는 점을 들어 철새를 통한 발병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조류 연구가인 널 무어스(Nial Moores. 영국)와 군산철새조망대 한성우 연구사 등 환경단체 및 일부 전문가들은 “AI를 유발하는 철새는 주로 유럽을 오가고 있으며 한국을 찾는 철새의 이동 경로(flyway)는 AI 발생국의 철새 이동 경로와 다르다”며 방역당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좁은 면적에 많은 가금류를 사육하는 우리나라의 밀집형 양계사육형태나 살처분

에 동원된 인력 및 장비, 혹은 신고 이전의 출입자 등에서 감염 경로를 찾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6개월 후에나 나온다는 점에서 이런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AI가 남긴 과제

AI는 이미 동남아와 중국, 몽골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AI는 언제든지 추가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최근 “학계나 자문위원들은 발생 양상이나 여러 역학적 조사를 감안할 때 현재 AI가 조기 종식되기는 힘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과 양계농가의 노력에 따라 AI 확산과 이로 인한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궁 속에 빠져있는 감염 원인과 경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철새가 원인이라면 주요 철새 도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방역이 이뤄져야 한다.

양계농가들도 철새나 텃새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겨울 동안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체 소독을 강화하는 등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전주=연합뉴스]



## 고병원성 AI 발병 충남도 '초비상'

전북에 이어 21일 충남 아산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충남도와 아산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충남도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아산시 탕정면 농장과 반경 3km 이내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오리알 등 생산물을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가 발생한 이 농장은 오리 9천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지난 5일부터 산란율이 떨어지기 시작해 최대 16%까지 감소했다는 신고를 받은 충남도는 지난 1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특히 이 농장은 지난 2004년에도 AI가 발생했던 곳으로 주요 예찰 대상에 올라 있어 그동안 주기적인 예찰과 혈청검사가 실시됐으며 이상 증세가 신고된 지난 11일부터는 생산물 이동 제한과 하루 3천~4천개의 알 폐기 등 방역 조치가 취해졌다.

도는 이날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우선 이 농장 입구에 방역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행이 예상되는 주요 도로 4곳에 초소를 설치, 경찰 병력을 동원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도는 또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10km까지를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제한 및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함께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위험 및 경계지역별 가축 사육 현황을 파악 중이다.

도는 이 농기를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 5곳에서 오리 2만1천마리와 닭, 메추리, 앵무새 1천마리 등 모두

2만2천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도 가축방역 관계자는 “검역원, 아산시와 협의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 축사소독과 농가간 접촉금지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가축을 세심히 관찰해 의심 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연합뉴스]



## 미국산 쇠고기 다이옥신 허용치 초과

뼛조각이 발견돼 반송됐던 미국산 쇠고기에서 허용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농림부는 2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 1일 미국에서 수입된 냉장 쇠고기 10.2t을 정밀검사한 결과 국내 잔류 허용기준인 5 페코그램(pg)/(g fat)을 웃도는 6.1p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다이옥신 검출 사실을 미국측에 통보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쇠고기내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는 드물다”며 “국내 쇠고기의 경우 최근 사례가 없었고 유럽에서 몇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한 화합물로 특히 PVC 제재가 많이 포함된 폐기물과 쓰레기를 태울 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번에 다이옥신이 검출된 쇠고기는 지난 10월 말 2년10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수입이 재개된 뒤 3번째 수입 물량으로, 육안 검사 결과 갈비본살(chuck short

rib)3개 상자에서 7개의 뼛조각이 발견돼 지난 6일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가 취해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당시 뼛조각 검사와 함께 다이옥신을 포함, 총 55종의 잔류 물질과 병원성 미생물 검사도 함께 실시했고, 이제 그 결과가 나왔다.

[서울=연합뉴스]



## 감귤찌꺼기 전량 가축사료로

제주지역 감귤가공공장에서 나오는 감귤박(감귤찌꺼기)이 모두 가축사료로 활용돼 감귤박의 해양투기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감귤가공업체들은 연간 10만t 내외의 감귤을 주스 및 농축액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4만~5만t의 감귤박을 폐기물업체에 위탁해 재활용하거나 t당 2만4천여원의 비용을 들여 해양투기하는 등 처리에 애를 먹어왔다.

도는 그러나 감귤박을 가축 사료로 공급한 결과 가능성이 돼지고지 및 쇠고기 등을 생산하는데 잇따라 성공했고, 제주지방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제1,2감귤복합 가공공장이 지난 10월 사료관리법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제조업체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연간 2만t 안팎의 감귤박이 발생했던 감귤복합가공공장은 제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과 연계해 올해 나오는 감귤박 전량을 가축 사육농가에 단미사료로 공급, 처리하고 있다.

제주도는 감귤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감귤박이 전량 재활용 되면 연간 5억원 가량의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연합뉴스]



## 농지에 축사 설치할때 농지전용절차 없어진다

국회 농림해양위, 7개 법률안 심의·의결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때 농지법상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축사 부지가 농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11월 29일 박홍수 농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 수정안' 등 7개 농림관련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농해위가 이날 의결한 농지법 개정안 수정안은 농지의 정의에 축사 부지를 포함, 앞으로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때 농지법상의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없도록 하고 있다. 또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때 건축법과 국토이용 계획법 등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 앞으로는 시장·군수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하지만 농지에 축사 진입이 쉬워질 경우 가축 분뇨로 인한 농경지 오염과, 향후 가공시설 설치 요구 확산 등 농지 난개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농해위는 또 상장경매 원칙과 각 유통 주체들의 역할 구분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안법 전부 개정안'은 상임위 법률안 심사소위에 계류시켰다.

농해위는 그러나 강기갑 의원안을 뺀 나머지 4건의 농안법 개정안을 하나로 합친 상임위 대안을 마련, 의결했다.

[농민신문]



## 브라질 쇠고기 수출액 호주 제치고 세계 1위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브라질의 쇠고기 수출액이 34억7천만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호주를 제치고 세계 1위로 떠올랐다고 현지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브라질 쇠고기 수출협회(Abiec)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미 수출량에서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브라질이 수출액에서도 처음으로 호주를 제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쇠고기 수출국으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현재까지의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 전체 수출액인 31억4천만 달러(239만1천t)를 이미 넘어선 규모다.

Abiec은 이에 따라 올해 쇠고기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10억 달러 정도가 늘어난 40억 달러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브라질은 현재 전 세계 쇠고기 수출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구제역 발생 이후 브라질산 쇠고기에 대해 불공정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 대해 무역보복을 검토하는 등 쇠고기 수출을 더욱 늘리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전 세계 56개국이 브라질산 쇠고기에 대해 부분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